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에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라.

淸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主 韓東元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청주한문의 국내외 100만 일가 여러분께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1년 신묘년(辛卯年)은 1,000여년동안 방치되었던 시조탄생유지(遺趾)를 淸韓閣으로 명명하여 성역화하는 위업(偉業)을 이루어낸 우리 한문의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겹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빈발하여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일가분들께서는 淸韓閣 건설이라는 큰 종사(宗事)를 위해 10억여원의 헌성금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일가 여러분의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淸韓閣외에도 시조묘역의 세일재를 30여년만에 중보수하고, 시조묘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해체하여 화강석으로 새롭게 축조했습니다. 5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한글 인터넷대동족보도 2010년 상반기 약 6개월 동안 집적적으로 호보하여 입보인원 총 69만6천명(남 48만명 70%, 여 21만6천명 30%)으로 9월18일 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한 후 개통했으며, 2011년4월30일까지 오류사항 정정 및 26세조까지의 유사기록 입보를 마쳤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던 서재공(恕齋公) 및 예빈윤공(禮賓尹公)의 세계서차(世系序次)문제에 대해 지난해 12월15

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역사학자들의 검토보고를 수용, 매듭을 지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재공(恕齋公)과 제주지역 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결고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으며, 예빈윤공의 세계서차(世系序次)문제는 “9세로 되어있던 것을 제6고대동보에서 7세로 입보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으로 제5고대동보 등 여러 기록들을 감안하여 9세로 환원한 후 남북통일이 되면 현지에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는 2월말로 3년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재임기간 중 이상과 같은 종사와 함께 크고 작은 몇가지 현안들을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는 오로지 각 종파와 광역시·도종친회 회장님들을 비롯한 각급 종친회의 임원님들과 뜻 있는 일가분들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 공로는 전적으로 일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종친회와 각 문중 및 광역시·도종친회 조직의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확충문제 ▲미래의 종친회 조직을 이끌어갈 청장년들의 조직 활성화문제 ▲현재 약 23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액 50억원으로 늘리는 문제 ▲淸韓閣으로 이어지는 난곡리의 도로 확장포장과 새로운 난곡교 건축문제 등 해결해야 할 종사와 현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 중에서도 특히 자손들을 훌륭하게 육성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종사라고 하겠습니다. 유사 이래 최초로 세 분의 국무총리를 연속해서 탄생시킨 명문으로서의 명예를 이어가려면 장학사업을 한층 더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한문의 자손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목표로 설정한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에 100만 일가들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일가들께서는 요즘 확산되어가는 기부문화 시류의 앞장에 서서 종친회의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3년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청주한씨 일가들은 위대한 시조의 핏줄을 이어받은 혈족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임을 강조하고 일가들간의 화합을 으뜸가는 덕목(德目)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임중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과 한글인터넷대동족보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차질은 없었으나 귀중한 종사에 비협조적으로 화합에 역행하는 일부 일가들의 행태에 크게 실망한 바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우리는 일가”임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구성원이 화합하지 못하는 조직이 쇠퇴하는 선례들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청주한문은 명문거족으로서의 위상(位相)을 지켜나가면서 한층 더 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60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흥륭띠 해입니다. 전설적으로 용은 비록 상상의 동물이기는 합니다만 출세, 비상(飛翔), 행운 등 길조(吉兆)를 상징하는 신성시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앞둔 사람에게 “용꿈을 꾸었느냐”고 묻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가분들께서 「용꿈」을 꾸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 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韓甲洙

「謹賀新年」

100만 일가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甲洙 중앙회장 陽壽 상임고문 瑁洙 상임고문

◆ 부회장(종파회장)

- 希天 삼재관리위원장
- 喆愚 사속공추모회장
- 楸泰 정혜공파회장
- 東錫 정당공파회장
- 敬洙 서원군파회장
- 相哲 평간공파회장
- 相益 문열공파회장
- 利澤 문간공파회장
- 相英 판서공파회장
- 裕光 청성군파회장
- 命洙 몽계공파회장

- 權洙 감사공파회장
- 鮮教 충성공파회장
- 龍鎭 이양공파회장
- 哲洙 검참공파회장
- 相益 문양공파회장
- 東學 문정공파회장
- 相夏 참판공파회장
- 丙鏞 양혜공파회장
- 云燮 현명공파회장
- 珉錫 장간공파회장
- 澤洙 첨정공파회장
- 辛錫 질경공파회장
- 天植 회양공파회장
- 吉洙 승지공파회장
- 도연 안양공파회장
- 태우 양평공파회장

- 連東 세마공파회장
- 昌萬 공간공파회장
- 基仁 판관공파회장
- 東協 삼등공파회장
- 哲永 영흥공파회장
- 洪洙 평해공파회장
- 광택 부위공파회장
- 三錫 장도공(도장동)파회장
- 상학 충의공파회장
- 상근 충정공파회장

◆ 부회장(지역회장)

- 太燮 부산광역시회장
- 燿燮 대구·경북회장
- 相基 인천광역시회장
- 昌華 광주광역시회장

- 甲洙 대전광역시회장
- 成國 울산광역시회장
- 光傳 경기도회장
- 圭澤 강원도회장
- 建錫 경상남도회장
- 泳教 전라북도회장
- 相旭 충청남도회장
- 章堧 충청북도회장
- 熙相 재일본회장
- 泰熙 미국 뉴욕회장
- 日高 미국 LA회장

◆ 전남 부회장

- 星燮 중무담당부회장
- 백춘 섭의담당부회장
- 貞圭 기혁담당부회장

- 愚仙 중무담당부회장
- 萬熙 조직담당부회장
- 德洙 재정담당부회장
- 東錫 문화담당부회장
- 駿錫 장학담당부회장
- 東元 종보담당부회장
- 一煥 제전담당부회장
- 영수 교육담당부회장
- 相權 유적유물담당부회장
- 太洙 청년담당부회장
- 명섭 선출직부회장
- 義吉 " "
- 珖秀 " "
- 相鴻 " "
- 경식 " "
- 愷 " "

- 도연 " "
- ◆ 감사
- 楸泰 정혜공파회장
- 東春 문정공파

◆ (재)청한장학회

- 甲洙 이사장
- 瑁洙 이사
- 孝東 " "
- 相旭 " "
- 愷 " "
- 駿錫 " "
- 章堧 " "
- 五作 " "
- 燿燮 " "
- 吉洙 " "

- 基虎 " "
- 鮮教 " "
- 福燮 " "
- 楸泰 " "
- 明洙 " "
- 相弼 " "
- 澤洙 " "
- 希天 " "
- 相瑞 " "
- 泳教 " "
- 判鉉 " "
- 成龍 " "
- 愚仙 " "
- 星燮 상임이사
- 백춘 감사
- 在瑞 " "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2202-04-033585 / 예금주: 한양명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2012년도 사업계획 · 예산(안) 채택

2011년도 주요사업실적도 보고



갑수회장(위)이 총회를 진행하고, 대의원들이 선조님께 묵념을 올리고 있다.(아래) <촬영:元敎>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중앙총회회는 2011년12월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전 국무총리 明淑고문, 전 청와대비서실장 光玉고문, 陽命상임고문, 瑀洙 상임고문 등 9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이사회 및 정

기총회를 열고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및 3억5,7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실적도 보고받았다.

▶ 관련기사 별항

세입예산(안)은 ①이월금 1억4,245만원 ②회비 1억100만원 ③찬조금 5,300만원 ④기본재산 2,260만원 ⑤중보성금 3,100

만원 ⑥문화사업수입 20만원 ⑦기타수입 675만원, 세출예산(안)은 ①각종 회의비 1,320만원 ②경상비 9,081만원 ③현장사업비 3,660만원 ④중보사업비 3,460만원 ⑤현안사업비 150만원 ⑥기타 1,820만원 ⑦예비비 1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甲洙중앙회장 인사말 : 전 국무총리 明淑고문과 전 청와대비서실장 光玉고문께서 참석하여 오늘의 정기총회가 더욱 빛난다. 지난 9월3일 준공식을 가진 淸韓閣은 시조탄생유지를 성역화한 크고도 영광스러운 중사였으며, 다른 성씨들이 보면 놀랄 것이며 부러운 눈으로 볼 것이다. 1년반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웅장하고도 수려한 석비각과 기적비를 세웠으며 현성비에는 많은 일가들의 성함이 각자되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세입재를 중보수하고 시조묘로 올라가는 돌계단도 전면 해체하여 신축했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많은 일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추진위원회 집행부회장단의 노고가 컸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해야할 중사들이 많으나 특히 중요한 사업은 후세들을 영재로 육성하는 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한다. 陽命, 瑀洙 전 임회장들께서 그동안 수고하여 현재 약 23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이 미 목표로 세워둔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이 급선무이다. 明淑, 昇洙, 應洙일가로 이어진 유사이래 최초의 3연속 총리는 다른 성씨들이 부러워하는 한문의 큰 경사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는 자손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일가들이 장학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

▲光玉고문 인사말 : 한씨문중은 운명적으로 선택된 일가들의 모임이며, 긍지를 갖는다. 명문에 태어난 운명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자랑스러운 한문을 위해 서로가 협조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明淑고문 인사말 : 한문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일가분들이 저에게로 다가와 "저도 청주한씨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너무나 반가웠다. 유사이래 최초의 여성총리의 영광을 한문의 일가들에게 돌린다. 앞으로 한문을 빛내는 일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

▲陽命상임고문 인사말 : 2011년은 '淸韓閣의 해' 라고 했으면 좋겠다. 청주한문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 것이다. 10억원의 정부교부금으로 영동군이 시공한 난곡천 복개 및 확장공사는 淸韓閣 완성에 큰 힘이 되었으며, 특히 甲洙회장의 노력과 공로가 컸다. 추진위 집행부회장단과 추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瑀洙 상임고문 인사말 : 淸韓閣은 중사에 영원히 빛날 업적이다. 甲洙회장, 陽命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에게 특히 감사를 드린다. 시조시향일 변경안이 지난번 총회 때 부결되었지만 시향일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보다 많은 젊은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휴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한다.

2011년도 주요사업실적

1. 시조 위양공부군 신묘년 시향 봉행

- 1) 10월 27일(음 10월 1일), 참사중원 1,600여명
- 2) 4위단 4위선조 시향 봉행
- 3) 시조시향 앞서 효자, 효부 10명 표창
- 4) 陽命상임고문 공적비 제막

2. 기성전 제례

4월7일(음 3월5일), 약 60명 참석

3. 무강왕릉 제례

4월17일(음 3월15일), 약 250명 참석

4. 총회 및 이사회 개최

- 1) 정기총회
 - 3월 23일,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 120명 참석
 -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정관 개정(안), 기타 현안
- 2) 임시총회
 - 9월 22일,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 100명 참석
 -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 추진상황, 공적비 건립(안), 기타 현안
- 3) 정기총회
 - 12월 15일, 하림각, 90여명 참석
 - 성역화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신년교례회

1월 20일 하림각, 100여명 참석

6. 淸韓閣 기공식 및 준공식

- 1) 기공식 : 3월 4일,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현장, 150여명 참석
- 2) 준공식 : 9월 3일,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현장, 1,200여명 참석

7.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 1) 전체회의 : 2011년8월17일, 중앙회 사무실, 51명 참석
- 2) 집행부 회장단회의 : 수시 개최 (주 1회)

8. 회장단회의 및 정관계중진고문단간담회

- 1) 회장단회의(2회) : 5월 14일, 9월 16일
- 2) 정관계중진 고문단 간담회 : 11월23일, 하림각

9. 제11회 청한장학회 장학금 지급

- 1) 5월 14일(토) 시조묘역
- 2) 지급액 : 78명 9,400만원 (누계 615명 6억1,400만원)

10. 제7교 한글인터넷대동족보 보완작업

- 1) 2010년 9월 18일 1단계로 입력작업 마감 후
- 2) 2011년 4월 30일까지 오류사항 정정 및 26세조까지 유사기록 입보
- 3) 입보인원 총수 : 69만 6천명(남 48만명 70%, 여 21만 6천명 30%)

11. 부진한 지역종친회 재정비 지원

경기도종친회 회장에 光傳일가 추천 지원 (3월3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안)

1. 총회 및 이사회 등

- 1) 정기총회 : 2012년 12월 중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외
- 2) 임시총회 : 2012년 1월 하순
 - 2011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안) 심의
 - 임원 개선 외
- 3) 신년교례회 : 2012년 1월 중
- 4) 회장단회의 : 년 2회 (필요 시 추가 소집)

2. 시조 위양공부군 및 4위부군 시향

2012년 11월 14일 (수·음10월1일)

3. 유적 수호 및 보존 대책 강구

- 1) 시조묘역 및 4위단 (4위단 비, 기적비 등 재정비), 청한각 등 유적 관리
- 2) 무강왕릉 수호 및 보존대책 강구 - 사학계 자문 의뢰
 - 무강왕릉제 봉행 : 음 3월 15일
- 3) 기성전(箕聖殿) 보수공사 지원
 - 2012년 기성전 제향 후 보수공사 예정 (충북 증평군)
 - 기성전 제향일 : 년 1회, 음 3월 5일

4. 장학기금 조성 및 제12회 장학금 지급

- 1) 장학기금 조성 목표금액 : 50억원 (기 조성금액 : 22억 8천만원, 증자준비금 포함)
- 2) 단위장학회 설립 권장 (문중 및 광역시·도, 해외)
- 3) 기업인 및 저명인사, 독지일가 출연 독려
- 4) 제12회 장학금 지급 : 2012년 5월 12일 둘째 주 토요일 (시조묘역)

5. 중앙종친회 조직 활성화 추진

- 1) 종사활동이 부진한 문중 및 광역시·도종친회 조직 재정비 지원
- 2) 청장년회 조직 활성화 지원 - 중앙 청장년회 조직 추진
- 3) 재정 자립도 확충방안 강구

정관계중진고문 초청간담회

甲洙중앙회장, 주요종사 설명



왼쪽 다섯번째부터 육군대장 민구 고문, 갑수 중앙회장, 전총리 승수 고문, 민주당 대표 화갑 고문(우측 다섯번째)

甲洙중앙총회장은 2011년 1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전 국무총리 昇洙고문, 민주당 대표 和甲고문, 육군대장 民求고문, 전 충남지사 陽洙고문 등 정관계 중진일가들을 초청, 시조탄생유지성역화 사업 추진경위, 현성금 내역 등 주요종사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陽命위원장, 백준, 駿錫, 成龍부위원장, 星燮간사 등 추진위 집행부 회장단과 珮洙상임고문, 光傳경기도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甲洙회장은 “1,000년 이상 방치되어왔던 시조탄생유지에 기적비와 석비각 등을 건립하여 웅장하고 아름답게 단장, 지난 9월 3일 준공식을 가진 淸韓閣은 이제 우리 청주한문의 성지(聖地)로 불릴만큼 성역화되었으며, 지난해에는 30년만에 시조묘역의 세일제를 중보수하고 시조묘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화강석으로 새로 축조하는 한편 5년간이나 끌어온 한글인터넷족보도 1단계로 완성하는 등 임기 3개월여를 남겨두고 계획했던 주요

종사를 대강 마무리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고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자금 목표액 10억원을 초과하여 현성금 일가 여러분들과 특히 현성금 모금에 앞장서서 수고한 陽命위원장 등 추진위 집행부회장단에게 다시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甲洙회장은 이어 앞으로 매듭지어야 할 주요종사로 다음과 같은 현안들을 열거하면서 모든 일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 현성금이 목표액 10억원을 초과했지만 앞으로 淸韓閣을 비롯한 시조 유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므로 일가들의 현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난곡리 입구에서 淸韓閣에 이르는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난곡교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2012년 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북도지사와 영동군수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약속했으므로 잘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 우리 청주한씨의 원조되시는 기성전(箕聖殿) 중보수비로 3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영달받아서 충북 증평군의 예

산에 책정하였으므로 2012년 중에는 중보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 중앙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인 제주 서재공의 세계서차(世系序次)에 관한 문제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역사학자들의 고증결과를 보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예빈윤공의 세계서차가 7세나 9세냐는 문제는, 과거대로 되돌려 9세로 하고 남북통일이 된 후 예빈윤공의 묘소와 사적들이 있는 함경도 현지에서 확인하여 확정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한 昇洙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외국에 나가서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아 국내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甲洙회장께서 잘하고 있어서 그동안 한씨문중에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민주당 대표인 和甲고문은 “그동안 종친회를 제대로 돕지 못해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해왔으며, 앞으로는 힘이 닿는대로 종친회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을 역임한 육군대장 民求고문은 “그동안 군문(軍門)에 있을 때는 바빠서 종친회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는 고향도 청주쪽이니 앞으로는 종친회 종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사를 역임한 陽洙고문은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을 추진한 甲洙회장과 추진위 집행부회장단에게 감사하며, 후손들은 훌륭한 유업에 자긍심을 갖고 한문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장인 陽命상임고문은 “시조탄생유지가 淸韓閣으로 명명되어 성역화되었지만, 앞으로 난곡리 입구에서 淸韓閣에 이르는 약 2km의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가 급선무인데, 甲洙회장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까지 끝내고 회장직을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배사를 선창한 珮洙 상임고문은 “和甲고문께서는 종친회를 제대로 돕지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수역원이 소요된 시조묘역 진입도로인 위양로(威襄路)확장·포장공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光傳경기도회장은 오찬을 협찬했다.

청한장학회 2011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임기만료 이사 5명 중 3명 유임, 2명 교체



청한장학회 2011년도 제2차 이사회 (촬영 : 元敎)

(재)청한장학회(이사장 甲洙중앙회장)는 2011년 12월 15일 오후 1시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201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11월 17일로 임기가 완료된 5명의 이사 중 星燮상임이사, 珮洙 이사, 駿錫이사를 유임시키고, 太洙이사와 萬熙이사는 퇴임하는 대신 澤洙상연공단위장학회장과 相彌청파공파단위장학회장을 신입이사로 선출했다.

星燮상임이사는 2011년도 주요사업실

적으로 ①11월 말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22억8,358만원이며 ②5월 14일 78명의 장학생에게 9,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③이사회를 2회(2월 25일, 12월 15일) 개최했다고 보고했다.

甲洙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후손들을 훌륭하게 육성하려면 장학사업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함으로 이미 목표로 설정되어있는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에 모든 일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앙종친회 2012년 신년하례회

1월 27일 임시총회 이어 갖기로

중앙종친회는 2012년 임진년 신년하례회를 1월27일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임시총회에 이어 갖기로 했다.

甲洙중앙회장은, 같은 날에 동일한 장소에서 임시총회에 이어 신년하례회를 갖게되는데 대해 “중앙회 임시총회와 신년하

례회는 규정과 관례상 신년초에 가져야 하는데 지방종친회 임원들이 추운 날씨에 교통비 등의 과도한 경비를 쓰면서 불과 1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서울까지 다녀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중앙종친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소집공고

- 일시 : 2012년 1월 27일 (금) 오전 11시
- 장소 : 전쟁기념관 역내 뮤지엄웨딩홀 (서울 용산구 삼각지)
- 안건 :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 2. 임원 개선에 관한 건
- 3. 기타
- 행사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1월 20일(금)까지 연락바랍니다. (02-720-6370~1)

2012년 1월 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韓 甲 洙

성역화사업 추진내용,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헌성금 총액 10억3천만원, 지출 9억 6,500만원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중앙총친회(회장 甲洙)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하림각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淸韓閣 준공과 시조묘역의 세일재 증보수 등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의 추진내용 및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2009년11월7일 162명의 추진위원으로 발족한 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陽命)는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2년1개월만에 해체되었다.

추진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성역화사업 추진내용과 세입·세출결산(안)에 의하면, 헌성금 총액은 (주)源志회장 溶教일가가 기탁한 1억원을 비롯하여 788명(각 중증 및 광역시·도총친회 포함)의 일가들이 헌성한 10억3,068만2,837원(이자수입 52만7,849원 포함)이며, 지출은 9억6,443만240원, 잔액은 6,624만4,597원으로 집계되었다.

東春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楸泰감사와 함께 지난해 11월26일 감사를 실시, 각종 계약서, 영수증, 경리장부 등을 정확히 열람하면서 감사한 결과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안) 내용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성역화사업 추진내용과 세입·세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역화사업 추진내용

1) 세일재 증보수 및 시조묘역 정화

- 공사기간 : 2010년 5월~10월
- 공사비용 : 1억9,870만4천원
- 세일재 본채 및 동관, 서관, 삼문, 관리사 보수
- 시조묘로 올라가는 돌계단 해체 및 신축 (45계단, 화강석, 난간대)
- 시조 제단비 모형비 건립 (원 제단비는 청주시 운동리에 위치하고 있음)
- 시조묘역 소나무 등 전지작업, 간이화장실 교체 등 (2011년)

2) 淸韓閣 건립사업

- 공사기간 : 2011년 3월~9월
- 공사비용 : 6억7,923만9천원
- 사업부지 확충 : 당초 541㎡(164평)에 489㎡(148평) 추가매입 1,030㎡(312평)로 확장 ?석비각, 기적비, 송시비, 헌성비, 삼문 건립 및 단청공사, 조경공사 등
- 기적비 비문 : 박성규교수, 이민홍교수, 김상홍교수, 한영우교수
- 기적비 비문 필체 : 예서체, 서예가 박자원선생 (전 국전 심사위원장)
- 송시비 건립 : 시문은 현대문으로 한영옥교수 (성신여대·문학박사·시인) 지음
- 준공식 : 2011년 9월 3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현

장, 1,200여명 참석

- 난곡천 일부 복개 및 진입도로 확장
- 정부 교부금 10억원으로 영동군에서 시공
- 길이 200m, 폭 5m

▲ 성역화사업 세입·세출결산(안)

- 수입총액 : 10억3,068만2,837원 (이자수입 527,849원 포함)
- 지출총액 : 9억6,443만8,240원
- 수지잔액 : 6,624만4,597원
- 지출내역
 - ①세일재 증보수 및 시조묘역 정화사업 1억9,870만원
 - ②시조탄생유지성역화사업 6억7,923만9,000원
 - 부지매입 및 등기 6,189만원
 - 설계도·조감도·측량 1,718만원
 - 토목, 건축공사 3억7,660만원
 - 석비각, 기적비, 비각공사 1억3,200만원
 - 조경, 식수공사 2,000만원
 - 공사감독, 감리비 2,470만원
 - 준공행사 및 관련비용 2,993만원
 - 기타 사업추진비용 1,694만원
 - ③홍보 및 관련행사 8,649만원
 - 추진회의 및 출장경비 2,990만원
 - 홍보발행 (매월 발행) 2,610만원
 - 기타 홍보 및 행사비용 3,049만

남해총친회, 有起선조 시향 봉행

시조묘·淸韓閣도 차례로 참배



남해총친회 일가들이 淸韓閣 석비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 남해총친회(회장 재성)는 2011년 11월1일 진주, 하동, 남해, 마산, 부산 등지에서 참석한 100여명의 일가들과 함께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에 참전한 입남조(廩) 有起선조의 시향을 봉행했다. 초헌관은 호림, 아헌관은 희영, 종헌관은 우동, 고축은 일균일가로 분방되었으며 원천(영환)일가

가 협찬했다. 이에 앞서 10월30일에는 50여명의 일가들이 시조묘와 시조탄생유지인 淸韓閣을 참배했으며, 특히 淸韓閣에서는 헌성비에 기록된 남해총친회의 헌성금 내역을 살펴보고는 한문의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淸韓閣 준공 후에도 헌성금 계속 답지

30만원 이상은 헌성비에 성함 추가키로

현령공파종중 500만원 등 1,050만원 헌성

중앙총친회(회장 甲洙)는, 지난 10월25일 淸韓閣내 헌성비 수립(豎立)을 마지막으로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뜻있는 일가들의 헌성금 기탁이 이어짐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헌성금이 납입될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헌성비의 남겨둔 여백부분에 추가하여 성함을 각자(刻字)하기로 했다.

헌성비가 수립된 후 지난해 12월말까지 ▲현령공파종중(회장 운섭)에서 500만원, ▲삼등공파 동북공파종중(회장 병철)에서 300만원, ▲화성서신면총친회장(회장 병철·삼등공파동북공파종중회장) 100만원 ▲포항시총친회에서 30만원, ▲삼보 포항시총친회장이 30만원, ▲운수 포항시총친회 부회장이 30만원, ▲용구 진도군총친회장이 30만원, ▲기원(판광공파 돈암공파)일가 3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헌성금이 기탁되었으며, 이 분들의 성함은 헌성비에 추가로 새겨지게 된다. 중앙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헌성금이 기탁되면 淸韓閣의 유지, 보수와 시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유적 및 업적 발굴 등 주요 종사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상님들의 시향일

- 기성전 제향 음력 3월 5일
- 무강왕 제향 음력 3월 15일
- 시조 위양공 음력 10월 1일
- 2·3·4·5세 4위 선조 4위단 음력 10월 1일
- 6·7·8세 선조 삼재 음력 3월 1일~3일
- 9세 사숙공 양력 4월 5일(청명)
- 10세 평간공 양력 4월 5일(청명)
- 10세 서원군 음력 3월 13일
- 11세 문경공, 충간공, 판사공 양력 4월 5일(청명)
- 12세 문열공 양력 4월 5일(청명)

제주 한씨와 서재공 연결점 확인 안돼

자문 의뢰받은 교수들 검토보고서 제출

정기총회에서 검토보고서 수용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1시 서울시 부암동 소재 하림각에서 개최된 중앙중친회 201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제주지역의 한씨 성씨 집단은 500여년 이상의 오랜 역사적인 연원을 가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11세 서재공 휘 천(愼齋公·諱 藏)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까지 드러난 역사자료에 의하면 양자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박성규교수와 동 대학 사학과 강제훈교수의 검토보고서를 수용했다. 두 교수는 중앙회가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한 역사학자들이다.

중앙회는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한씨문중에 서재공 후손으로 입보(入譜)될 수 없다는 방침을 공한으로 통보했으며, 이로써 「중앙중친회가 제6교대동보에 서재공을 무사(無嗣) 절손(絶孫)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후손 2만여명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주시 바란다」는 진정(1997년9월1일)은 양자간에 연결이 없다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앞으로 연결점이 있다는 새로운 고증자료가 있어야만 이를 반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재공 관련 현안 검토경위 및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재공 관련 현안 검토경위

▲중앙중친회가 발간한 제6교 대동족보 丁卯譜에 11세 서재공(諱 藏)을 무후 절손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후손들 2만여명을 제외시킨 것은 극히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시정해주시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주 서재공문중으로부터 지난 1997년 9월 1일부로 받은바 있으나 고증자료가 없어 변경처리 할 수가 없었다.

▲중앙중친회는 2004년2월부터 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을 위해 수단을 접수하고 구축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9년2월 甲洙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박차를 가해 2010년 8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개통하면서 1단계 사업을 마감했다.

▲중앙회는 또한 역점사업으로 1,000여 년 동안 방치되어온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 10억원을 각 문중과 광역시·도중친회에 배정, 납입되는 현성금 내역을 각자한 현성비를 세우기로 했다.

▲제주문중에서도 성역화사업 현성금을 납입하고 서재공문중으로 각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현재까지 사실관계 입증이 없고, 입보(入譜)도 안 된 상태임으로 불가하다고 회신했으나 같은 요청을 재차 해왔다.

▲甲洙회장은, 이조실록에도 서재공이 무사라고 기재되어있다는 주장도 있어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위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객관성 있는 사료와 검토를 위하여 국내 유수의 대학교수들에게 자문 및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11월24일~25일 이틀동안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박성규교수, 동 대학 사학과 강제훈교수, 본회 백춘, 星燮부회장 등 4인이 제주도로 현지답사하여 고증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검토결과를 근거로 12월9일 甲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제주문중의 大變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교수들의 검토보고서를 듣기로 했으나, 제주문중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다음은 박성규교수와 강제훈교수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검토보고서 요약 내용

▲「제주지역의 한씨 성씨 집단이 500여 년 이상의 오랜 역사적인 연원을 가진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들과 한천을 연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까지 드러난 역사자료에 의하면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판단과는 별도로 제주지역의 한씨 집단이 자신의 출자를 한천에 연결하여 인식하게 된 이유 및 과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지역 한씨는 1481년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씨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천에게 조선 건국 무렵 유배형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유배지가 제주지역인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황 증거에 의하면 한천의 유배지역은 제주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1392년 이후 확인되는 한천의 공식적인 지위가 원종공신(原從功臣), 판삼사사치사(判三司事致仕), 검교시중(檢校侍中)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망 및 재산분쟁 관련 사안이 사헌부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보아 서울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조실록 한천무사(韓?無嗣) 기록은 정처(正妻)뿐 아니라 첩(妾) 소생의 아들 혹은 딸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제훈 교수(왼쪽에서 두번째)와 박성규 교수 (왼쪽에서 세번째)가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예빈윤공 세계서차 9세로 환원키로

6교에 7세로 입보한 것 타당성 부족

정기총회에서 역사학자 검토결론 수용

지난해 12월15일 오전 11시 서울시 부암동 소재 하림각에서 개최된 201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제6교대동보에 예빈윤공을 9세에서 7세로 입보한 것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므로 남북통일이 되면 현지에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정하고, 그때까지는 본래대로 9세로 환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역사학자들의 판단을 수용했다.

중앙중친회(회장 甲洙)는 그동안 삼재관리위원회(회장 希天)에서 수차례 걸쳐 제기한 예빈윤공의 세계서차(世系序次) 정정요청에 따라 정확한 고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박성규 학장과 강제훈 역사학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7세 또는 9세로 정함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다음과 같은 검토 결론을 보고받았다.

◆조사 및 검토내용

- ▲ 청주한씨중앙중친회에서 발간한 제5교 갑자 대동보(1924년)에 9세로 등재되어 있음
- ▲ 문해공(휘 강, 7세조) 신도비(1941년 수립)에 예빈윤공을 9세로 각자하였음
- ▲ 제6교 정묘 청주한씨대동족보(1993년)에는 7세로 되어있음
- ▲ 정확한 고증을 위해 고려대학교 박성규 학장과 강제훈 교수에게 자문 의뢰하였으나 7세 또는 9세로 정함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검토 결론

- ▲ 제6교 정묘 청주한씨대동족보 편찬위원회가 확실한 고증없이 예빈윤공을 9세에서 7세로 입보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제5교 갑자대동보, 문해공 신도비 등의 기록을 감안하여 본래대로 9세로 환원한 후 남북통일이 되면 현지에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吉洙회장, 낙수첩 제2집 출간



—松 吉洙국산공파회장은 낙수첩 제1집을 펴낸지 1년만인 2011년 10월15일 시 16수, 수필 15편, 낙수 11편을 수록한 낙수첩 제2집을 출간했다.

吉洙회장은 발간사에서 친목모임인 송죽회에서 100만원, 직장에서 인연을 맺은 모임에서 50만원, 고교동문 모임인 末金會에서 30만원의 성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내달라”고 채찍질하여 그 빛의 일부라도 값을 생각으로 제2집을 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비아일가, 유엔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선임



작가이며 오지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아(1958년 서울 출생)일가가 박수길 전 유엔대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2011~14년 임기의 유엔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지난해 9월1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송의여고, 홍익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타대학 대학원 국제홍보학과 석사를 받은 비아일가는 7년간의 세계 오지여행에서 얻은 견문(見聞)을 소재로 수 많은 저서를 내기도 했다.

백졸재 한응인 탄생 45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주제 논문 (요약)

우리 청주한씨를 명문(名門)으로 일으킨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학술적으로 새로이 발굴, 연구하고 재조명하여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도록 하는 일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이다. 따라서 지난 10월20일 백졸재한응인기념사업회 주최로 개최된 “백졸재 한응인 탄생 45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백졸재는 조선 선조조에서 6조(曹)의 모든 판서직을 두루 거친 후 우의정을 역임하고, 광국(光國)공신, 평년(平難)공신, 청평군(淸平君)의 봉호(封號)를 받은 명신(名臣)으로, 명나라를 네차례나 다녀 오면서 임진왜란의 국난극복에 지대한 공을 세운 명외교관이며 당대의 문장가로도 명성이 높았던 청주한씨의 자랑스러운 선조 중 한분이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한문의 많은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더욱 더 활발히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사계(斯界)의 권위있는 박성규 고려대교수, 김상홍 단국대석좌교수, 한명기 명지대교수가 “백졸재 한응인 탄생 45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하여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기 조 발 표 백졸재 선생의 생애와 현실인식

백졸재 한응인(百拙齋 韓應寅 · 1554~1614)선생은 조선조 명신(名臣) 가운데 한분으로 청주 韓門을 중흥시킨 공적이 다대하다. 16세기 후반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결판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맞아 선생이 보인 우국충정과 구국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조선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의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진왜란의 공간에서 활약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구대상이 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선생이 혼신의 힘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공적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선생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 국가와 대의명분을 위해 헌신했던 비범한 처세에 대해서도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선생은 명종 9년인 1554년4월4일(양력

5월2일) 한양에서 韓敬男과 경주인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0대조는 고려 말에 우정승에 올랐던 思肅 韓渥이며, 6대조는 좌의정을 지낸 襄節公 韓確이다. 고조부 韓健은 이조판서, 증조부는 이조판서, 조부는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영의정에 추증되는 영광을 누렸다. 여기에서 청주한씨의 별열 형성은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세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처음 오른 뒤로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로 나누어진 6조의 수장인 판서직을 다 역임하는 진 기록을 수립했으며, 이어 1606년10월 우의정에 제수되어 정승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1614년3월23일 61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박성규 고려대 교수

제 1 주제 백졸재 한응인의 문학세계

백졸재 한응인(百拙齋 韓應寅 · 1554~1614)은 조선 선조조(宣祖朝)의 공신이자 명신(名臣)이며 외교관이다. 또한 효자였고 문장가이기도 하다. 그의 문학은 목능선세(穆陵盛世)의 문단을 빛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화려한 경력과 훌륭한 업적에 가려져서 성진일세(聲振一世)한 문학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첫째, 백졸재의 문학에는 애민(愛民)사상이 내재되어있다. 그는 효자였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미루어 백성을 사랑했다. 그의 일생의 하나하나가 애국애민이 아님이 없다. 그는 한유(韓愈)가 「原人」에서 인간의 도(道)를 밝힌 “一視而同仁 篤近而舉遠(일시동인 독근이거원)”을 실천했다. 그는 賦(부) 「淸陰分四方(청음분사방)」에서, 임금 은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淸陰)을 혼자 즐기는 독락(獨樂)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함께 즐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애민사상이다. 즉 “王道→여민동락→애민”이라는 그의 애민사상은 바로 왕도론(王道論)이기도 하다.

둘째, 백졸재 시(詩)세계의 연원(淵源)은 당시(唐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史記』로부터 당나라 蘇味道, 李白, 杜甫, 孟郊, 白居易 등의 시에 깊은 이해가 있었다. 唐詩를 자유롭게 용사하여 자신의 시세계의 지평을 넓혔다.

셋째, 백졸재의 戀君詩에는 연군의 정과 丹心이 있다. 杜甫가 一飯에도 不忘君한 것

처럼 백졸재는 宣祖를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정성을 다하고 죽도록 애를 쓰며(竭誠盡忠) 나라일을 내 집 일처럼 걱정(憂國如家)”한 세계가 있다.

넷째, 백졸재의 사행시(使行詩)는 사행시의 롤 모델(Role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백졸재의 사행시에는 로맨스가 있고 인간애가 있다. 사행 중에 있었던 일행들의 로맨스는 결국 시인 백졸재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그는 여성의 심리묘사에 뛰어났고, 절구(絶句)는 唐詩 못지않은 풍격이 있다.

여섯째, 백졸재의 자연시는 담백하고 청정(淸澄)하며 무욕의 세계가 있다.

일곱째, 백졸재의 시의 우수성을 읊시(律詩)의 대우(對偶)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시 180수 중 對偶를 해야하는 오언율시가 27수, 5언배율이 2수, 7언율시가 61수로 총 90수로 전체의 50%가 된다. 고시(古詩)보다 근체시(近體詩)에 능했다.

여덟째, 백졸재는 목능성세(穆陵盛世)에 문장으로 성진일세(聲振一世)한 시인이다. 그러나 그의 공적과 명성에 가려 그의 문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과 月沙 李廷龜, 尤菴 宋時烈, 曾孫 韓聖佑는, 백졸재의 문학은 聲振一世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그의 시풍은 당풍(唐風)의 운치가 있고, 또한 시재가 만만치 않으며 보기드문 서정시인이라고 했다.

金相洪 단국대 석좌교수 · 한문학

제 1 주제 토론 한문학적 원로대가의 본격적인 연구로 큰 의미

조선시대 宣祖 치세는 ‘穆陵盛世’라 하여 기라성 같은 문인과 학자들이 촉출(簇出)한 시대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百拙齋 韓應寅은 이러한 穆陵盛世가 배출한 뛰어난 시인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선시대 漢詩史 연구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尤庵 宋時烈의 지적대로, 百拙齋의 탁월한 정치적 외교적 공적

때문에 그의 문인으로서의 진면목이 가려워진 탓이 클 것이다. 그리하여 百拙齋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현재 석사논문 1편이 나와 있을 뿐인 실정에서, 金相洪 교수님의 이번 발표는 漢文學界의 元老大家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金明昊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제 2 주제 임진왜란 전후 한응인의 외교활동 연구

16세기 중반 이래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조선 초기이래 원만한 관계를 이어온 명과의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對明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현안 하나를 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종계변무(宗系辨誣 · 이시왕조의 조상이 명나라의 會典에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는 일)문제였다.

이 같은 對明, 對日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韓應寅(1554~1614)이다. 宣祖 때 주로 활약했던 文臣이자 학자, 그리고 외교관이었던 그는 종계변무 문제를 해결했고,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안팎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韓應寅의 외교적 업적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종계변무’라는 이조 초기 이래의 국가적 과업을 완수한 것이다. 그는 1584년(선조 17년) 종계변무를 위한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갔거니와, 당시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朝明관계의 현안이었던 종계변무를 해결하고 돌아왔으며 광국공신(光國功臣)으로 녹훈되었다.

조선은 1392년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의 『大明會典』(이른바 『正德會典』) 朝貢朝에 실려 있는 조선왕실에 관련된 조문의 내용

을 고치는 문제를 둘러싸고 명나라와 외교적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大明會典』에는 조선 건국의 주도자인 이성계(李成桂)를 가리켜 “李仁任의 아들이자 4명의 고려 국왕을 시해(弑害)하고 정권을 찬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류가 최초로 기재된 것은 명 태조 朱元璋이 제정했던 『皇明祖訓』이었다.

韓應寅의 활약이 빛을 발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였다. 대동강이 풀리고 宣祖가 의주까지 파천하면서 韓應寅은 明軍을 불러오는 외교적 임무를 맡게 된다. 최초로 조선에 들어왔던 명의 원군 장수 史儒의 접반사(接伴使)를 맡아 그들에 대한 향도(嚮導)와 양초(糧草), 접제(接濟) 등에 노심초사했다. 그들이 평양전투에서 패퇴한 뒤 종사(宗社)의 위기가 더 심화되자 韓應寅은 압록진 건너 遼陽일대를 주유하며 제2차 명의 지원군을 조속히 불러오기 위해 노력한다.

우여곡절 끝에 李如松이 이끄는 5만여의 대군이 어왔을 때 韓應寅은 다시 李如松의 접반사가 되었다. 그를 성심 성의껏 접반하면서 평양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냈으며, 일방적으로 밀리던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기(轉機)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요컨대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을 맞아 宗社와 生靈이 위기에 처했을 때 韓應寅이 보여주었던 구국과 위민(爲民) 활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명기 명지대 · 사학과 교수

제 2 주제 토론 “한응인의 외교적 자질과 노력상은 「외교경국」

한명기 교수는 조선시대 외교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연구자이고,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3국의 관계망 속에서 조선의 외교를 파악하는 큰 시야를 가진 연구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논문 역시 한교수의 장점이 잘 발휘된 노작(勞作)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논고에서 드러난 韓應寅의 외교적 자질과 노력상은 ‘外交經國’이라 해도 좋을 만큼 진정성과 탁월성을 갖추고 있다.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증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증보(宗報)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화합의 마당으로, 한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하고도 유익한 매체(媒體)입니다. 만 적자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증보’를 구독하시는 일가분들이 ‘증보’는 받아보시면서 증보비를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증보’는 중앙총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송금하려면 번거로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군·구 총친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모아서 단체로 보내면 편리할 것입니다.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가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 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한 씨 중앙 총 친 회

대구·경북중친회 신축회관 완공 임원회의, 1월 28일 준공식 갖기로



대구경북중친회 임원회의. 燾燮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중친회(회장 燾燮)는 2011년 11월19일 오전 11시 신축한 중친회관 「청한회관」에서 고문, 임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고 「청한회관」 준공식을 2012년 1월28일 오전 11시 신년교례회와 동시에 거행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중친회는 지난 2008년 구 중친회관이 도로확장 부지에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2억700만원을 재원으로 총공사비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5월 7일 잔여대지 363㎡(110평)에 연건평 396

㎡(120평)의 2층 건물로 신축회관 건립에 착공, 6개월만에 완공하고 이날 신축회관에서 첫 임원회의를 가졌다.

임원회의에서는 신축회관 건립에 공이 큰 燾燮회장에게 준공식 때 공로패를 수여키로 결의하는 한편 공사비 부족액 6,800만원에 대해서는 회관 1층 임대료와 일가들의 협찬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이날 임원회의의 석상에서 500만원이 현성되는 등 이날 현재 2,500만원의 협찬금이 조성되었다.

청한산악회 송년 산행



청한산악회 회원들이 해명산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송년을 겸한 정기산행은 18일(일) 해명산(327m)으로 다녀왔다. 해명산은 강화 석모도 한가운데 있어 산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맞볼 수 있으며 산세가 아기자기하고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듬뿍 받으며 산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를 탄 32명의 회원들은 선상에서의 약 10분동안 서해바닷가를 배경으로 뱃전을 따르는 갈매기들을 보면서 시골의 포근한 정감을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들머리인 전득이 고개에서 1시간 정도를 올라 산 정상에 서니 낙가산과 상봉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 바다에 아른거리는 이름 모를 섬들을 바라

보면서 능선을 따라 가노라니 마치 바다 위를 걷는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산행을 하지 않은 회원들은 바닷가와 유적지를 둘러보았고 우리나라 3대 해상관을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보문사에서 합류하여 식사와 함께 술잔을 나누면서 피로를 풀었다.

11월 정기산행은 27일(일) 35명의 회원들이 대신읍 독곶리에 위치한 황금산을 찾아 해송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기암괴석과 때 묻지않은 해변의 절경을 접하면서 일상에서 찌든 마음을 씻어내고 돌아왔다. 회원 일동과 모든 일가들께서는 임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 중앙회 상무 鍾仁>

중앙회 방문 일가들

- 基燦 경기 성남시
- 輪洙 서울 송파구
- 相根 서울 강동구
- 大熙 경기 고양시
- 東億 경기 성남시
- 秉雲 서울 송파구
- 炳雄 서울 중랑구
- 壽昌 경기 부천시
- 相根 서울 강동구
- 相瑞 서울 구로구
- 聖奎 서울 구로구
- 壯燮 울산시 북구
- 春子 서울 마포구

韓昌祐회장, “전재산 사회환원하겠다” “한·일 우호 증진 위해”... 전재산 2조원 이상 추산



재일동포 기업가인 (주)마루한 韓昌祐회장(사진)은 지난해 11월4일 “한·일우호증진을 위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韓회장의 보유재산은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韓회장은 제10차 세계한상(韓商)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일본은 나를 키워준 나라”라고 말하면서 “한·일 두 나라의 우호증진을 위해 나의 나머지 생애와 재산을 바치기

로 했다”고 밝혔다. 韓회장은 1931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昌祐회장은 16세 때인 1947년 일본으로 밀항하여 고학으로 호세이(法政)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파친코(슬롯머신)업계에 투신, 1957년 (주)마루한을 설립한지 48년 만인 2005년 매출 1조엔(당시 약 10조원 상당)의 경이적인 업적을 올렸으며, 일본 최대의 파친코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昌祐회장은 파친코 외에도 은행, 보험, 건축, 식품, 광고, 청소용역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현재 30조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일본 굴지의 재벌업체로 성장했으며, 지난 2009년 포브스가 발표한 일본 부호 순위에서 재산 1,320억엔(약 1조9,100억 원)으로 22위에 올랐었다. 지난 2005년에는 청주한씨중앙중친회 산하 (재)청한장학회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고교 2년 한승윤 일가 ‘물리마스터’ 1호 획득



경기과학교 2년생인 한승윤(17·사진) 일가가 대학생도 아닌 고교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마스터’ 1호의 인증을 받는 영예를 획득했다.

‘물리마스터’는 한국물리학회가 2010년부터 해마다 네 차례 치르는 물리 인증시험 가운데 ‘전문가급’ 네 과목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주기로 한 칭호이며, 대학학부 수준의 세 가지 물리학 필수과목(고전역학, 양자역학, 전자기학)과 한 가지

선택과목(열 및 통계, 광학, 고체물리, 핵 및 입자물리)을 치러 모두 80점(100점 만점)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주로 대학생들이 도전했으나, 대부분 개별 과목 합격자만 나왔을 뿐 네 과목을 모두 통과하는 승윤일가가 최초이다. 물리학회평가위원회 박병윤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전문가급 시험은 물리 전공 대학원 시험보다도 까다로운데, 고교생이 네 과목을 모두 합격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학교에서도 물리 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급 성적을 올리고 있는 승윤일가는 “평소 대학교재로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온 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대학에 가서도 물리학을 전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 한창기일가 소장품 800여점 전시한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개관



고 한창기(1936~97)일가가 유언으로 남긴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 고인이 사망한지 14년만에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 옆에 세워져 2011년 11월 21일 개관식을 가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출판계에 투신, 76년에 가로쓰기 순한글 일간지 「뿌리깊은 나무」를, 84년에 「샘이 깊은 물」을 창간해 한국 잡지계에 새로운 바

람을 일으키기도 한 창기일가의 유언에 따라 건립된 동 박물관(1,736㎡)은 전시관 1동과 구례에서 옮겨온 한옥 8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인이 소장했던 고서와 민속품 등 유물 6,500여점 중 8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박물관의 건립은 고인의 제수이며 (재)「뿌리깊은 나무」의 차정금(59)이 사상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개인종보비 (9~12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경구(서울 강동구)	100
기흥(경기 하남시)	100
동수(충북 청원군)	100
쌍석(경북 경주시)	100
정순(경기 화성시)	100
종원 이사(경기 김포시)	100
태이(서울 관악구)	100
상호 이사(충남 부여군)	60
강현(충남 아산시)	50
광희(경기 의정부시)	50
국렬 운영위원(완주군회장)	50
근백(경기 부천시)	50
덕수(경기 평택시)	50
도교(경북 상주시)	50
두환(충북 청주시)	50
명철(서울 성동구)	50
세희(서울 관악구)	50
재운 이사(광주 북구)	50
조정(서울 마포구)	50
기영(강원 강릉시)	40
덕복(강원 양양군)	40
기대(서울 강동구)	30
기설(서울 송파구)	30
동석(서울 용산구)	30
무석(충북 청주시)	30
민교(충남 천안시)	30
상문(충남 부여군)	30
상설(대구 북구)	30
상안(경북 구미시)	30
상희(서울 동작구)	30
성교(충북 음성군)	30
성용(경남 거제시)	30
영상(경기 파주시)	30
영일(서울 동대문구)	30
장섭(대구 달성군)	30
재운(서울 송파구)	30
종훈(경기 남양주시)	30
진수(서울 강북구)	30
창동(서울 금천구)	30
현택(서울 노원구)	30
건동 이사(서울 양천구)	2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20
규덕(경기 부천시)	20
규성(경기 김포시)	20
규성(경기 김포시)	20
규장(충남 천안시)	20
규환(충북 제천시)	20
근영(전남 여주시)	20
근희(충남 천안시)	20
기달 이사(서울 강북구)	20
달우 이사(경기 부천시)	20
대규(경기 부천시)	20
동덕(경북 포항시)	20
두석(경기 의왕시)	20
두현(대구 북구)	20
만엽(서울 서초구)	20
만철(서울 서초구)	20
면희(서울 서초구)	20
명교(경기 용인시)	20
민석 이사(경기 의정부시)	20
병재 이사(전북 임실군)	20
병철(경기 화성시)	20
병호(서울 서초구)	20
상규(충남 보령시)	20
상근(서울 강동구)	20
상기(서울 송파구)	20
상만 이사(충남 금산군)	20
상문(광주 동구)	20
상민(서울 성동구)	20
상복(강원 정선군)	20
상우(경북 영천시)	20
상욱(충남 청양군)	20
상운(서울 송파구)	20

이름	금액
상익(서울 성동구)	20
상철(강원 춘천시)	20
상필 이사(경기 하남시)	20
상훈(서울 도봉구)	20
상희(전북 전주시)	20
석홍(서울 은평구)	20
선빈(서울 서초구)	20
성명미상(도봉구)	20
성민(화성시회장)	20
순례(서울 관악구)	20
애삼(서울 서초구)	2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20
영수(충남 금산군)	20
용규(경북 영천시)	20
용석(경기 평택시)	20
우수(전북 남원시)	20
우영(서울 마포구)	20
은섭(인천 강화군)	20
응섭(전남 보성군)	20
이주(충남 서산시)	20
일석 운영위원(서울 서초구)	20
일택 이사(서울 구로구)	20
장선(전남 보성군)	20
장수(경기 고양시)	20
전 이사(인천 부평구)	20
정용(전남 보성군)	20
종섭(경남 창원시)	2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
종현(경기 고양시)	20
지동(경기 하남시)	20
창석(경기 의왕시)	2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20
창수(경기 과천시)	20
창원(충남 금산군)	20
치수(대전 동구)	20
태문(경기 수원시)	20
판경(대구 달서구)	20
호석 이사(경기 고양시)	20
호준(경기 남양주시)	20
홍섭(경기 양주시)	20
희왕(전북 군산시)	20
공필(서울 동작구)	10
재규(서울 용산구)	10
철남 이사(강원 춘천시)	10
택용(서울 노원구)	10
합 계	3,480

단체종보비(9~12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고성군종친회	200
남해군종친회	200
문정공파병사공종중	200
파주시종친회	200
홍성군종친회	200
목포시종친회	100
청양군종친회	100
영암군종친회	50
합 계	1,250

일반찬조헌성금(9~12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감사공문중(양명회장 공적비관련)	3,500
명숙 고문	1,000
전 이사(인천 부평구)	30
합 계	4,530

운영회비 (9~12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동석 부회장(삼재 총무)	1,000
연동 부회장(세마공회장)	1,000
삼석 부회장(장도공도장동파회장)	1,000
상익 부회장(문열공회장)	1,000
선교 부회장(충성공파회장)	1,000
용진 부회장(이양공파회장)	1,000
준석 부회장(무농회 회장)	1,000
희천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
경수 부회장(서원군회장)	500
근수 부회장(감사공파회장)	500
성국 부회장(울산사회장)	5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
선종 자문위원(전북 김제시)	400
호길 운영위원(남원사회장)	400
화진 고문(서울 서초구)	300
광옥 고문	300
추태 부회장(정해공회장)	300
만우 자문위원(대전 서구)	210
성순 고문(경기 성남시)	200
효섭 고문(부산 연제구)	200
관희 자문위원(전 인천사회장)	200
대현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2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
철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200
동춘 감사	200
기석 운영위원(공주시회장)	200
진섭 운영위원(부평구 회장)	200
국렬 운영위원(완주군회장)	200
병윤 운영위원(태안군회장)	200
병종 운영위원(영광군회장)	200
삼렬 운영위원(고성군회장)	200
상열 운영위원(강북도봉구회장)	200
상진 운영위원(금산군회장)	200
석우 운영위원(용인사회장)	200
용구 운영위원(진도군회장)	200
우인 운영위원(동작구 회장)	200
일석 운영위원(서초구회장)	200
재성 운영위원(남해군회장)	200
판영 운영위원(익산시회장)	200
기조 이사(전남 나주시)	200
기학 이사(경남 함안군)	200
상용 이사(강원 춘천시)	200
상정 이사(충남 보령시)	200
정택 이사(경기 부천시)	200
양수 고문(서울 송파구)	100
상복 운영위원(충주시회장)	100
종원 이사(경기 김포시)	100
이덕 이사(경기도상무)	10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100
찬우 이사(세마공부회장)	100
인원 이사(세마공부회장)	100
주현 이사(세마공부회장)	100
홍규 이사(충남 보령시)	100
규동 이사(인천 부평구)	100
영수 이사(경기 김포시)	100
용희 이사(서울 성북구)	100
일택 이사(서울 구로구)	100
종인 이사(중앙회 상무)	100
갑전 이사(서울 성동구)	100
강석 이사(전남 영광군)	100
건동 이사(서울 양천구)	100
경남 이사(대전 동구)	100
경석 이사(서울 강남구)	100

이름	금액
구현 이사(경남 진주시)	100
귀만 이사(전북 김제시)	100
기달 이사(서울 강북구)	100
기태 이사(경기 파주시)	100
기흥 이사(광주 동구)	100
길상 이사(전북 남원시)	100
동섭 이사(대전 동구)	100
만주 이사(강원 원주시)	100
명수 이사(강원 춘천시)	100
병재 이사(전북 임실군)	100
부동 이사(부산 남구)	100
상기 이사(충의공)	100
상도 이사(서울 동대문구)	100
상만 이사(충남 금산군)	100
상배 이사(충남 천안시)	100
상욱 이사(경기 고양시)	100
상춘 이사(경기 의정부시)	100
상태 이사(광주 광산구)	100
상필 이사(경기 하남시)	100
생기 이사(경북 고령군)	100
수갑 이사(인천 강화군)	100
승남 이사(경기 이천시)	100
영식 이사(서울 서초구)	100
영옥 이사(광주 광산구)	100
영채 이사(경기 안산시)	100
완택 이사(경기 평택시)	100
재운 이사(광주 북구)	100
전 이사(인천 부평구)	100
철현 이사(전남 영광군)	100
철호 이사(전남 영광군)	100
현섭 이사(광주 남구)	100
영준 이사(경기 부천시)	5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30
합 계	22,190

장학기금납부 내역 (9~12월) 단위 : 천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962	황성군종친회	200	200
31	창성(서울 서초구)	100	5,630
87	종원(경기 김포시)	100	1,660
1957	세희(서울 관악구)	50	50
799	조정(서울 마포구)	50	80
1403	동수(충북 청원군)	50	130
251	전(인천 부평구)	50	650
363	점수(부산 해운대구)	40	410
1958	창수(경기 안산시)	30	30
1810	창동(서울 금천구)	30	80
342	상익(서울 성동구)	30	250
1650	영일(서울 동대문구)	30	280
1959	현석(강원 춘천시)	20	20
1960	원석(서울 구로구)	20	20
1961	도녕(경기 고양시)	20	2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20	220
1953	연희(경기 고양시)	10	10
466	은섭(인천 강화군)	10	100
1489	택용(서울 노원구)	10	13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	260
1951	기택	7	11
1955	배위자	4	6
1956	기원	4	6
1950	창업	4	7
1718	상희(전북 전주시)	1	101
합 계		900	